FIXED INCOME ISSUE REPORT

2026. 4. 10.

글로벌채권팀

김지만 Senior Analyst
jiman8.kim@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4월 금통위 Review

연내 기준 금리 동결 전망 유지

- 4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 중동 전쟁으로 물가 상방·성장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된 가운데, 사태 추이와 파급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판단
-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성장률은 2월 전망(2.0%)을 하회, 소비자 물가는 2월 전망(2.2%)을 '상당 폭 상회'할 것으로 제시하며 물가 불확실성을 강조
- 다만 공급 충격 성격과 근원 물가 안정을 감안하면 기준 금리 인상 압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당사 기준 금리 전망은 연내 동결로 유지

금통위 결과 및 주요 포인트

4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는 2.50%로 동결되었다. 만장일치 결정으로 작년 5월 인하 이후 7번째 동결이다. 이번 회의는 이창용 총재와 신선환 금통위원의 마지막 금통위였으며, 특별히 매파적/ 비둘기파적인 시그널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

통방문에서는 중동 전쟁 이후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한 5월 '수정 경제 전망'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었는데, 성장률에 대해서는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치(2.2%)를 상당 폭 상회할 것'으로 제시했다. 올해 물가 수준에 대해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참고: 당사 전망은 '26년 성장률 2.3%,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 2.5%)

이창용 총재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하여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상·인하 논의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점도표 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차기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열어 두었다.

기준 금리 및 채권 금리에 대한 판단

당사는 기존 전망대로 연내 기준 금리 동결 전망을 유지한다. 이번 물가 상승이 공급 충격 성격이라는 점과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근원 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물론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며 사태의 지속성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계감은 높게 유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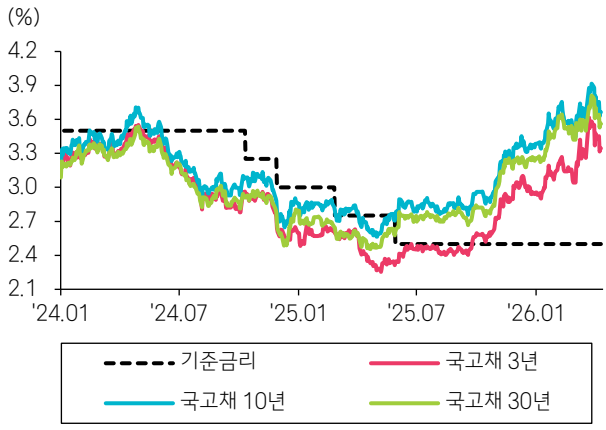
금통위 결과 확인 후 채권 금리는 만기별로 2~4bp 수준 오르면서 소폭 약세를 나타냈다(4/10일 1pm 기준). 이는 통방문에서 물가 상방 위험을 강조한 부분, 포워드 가이던스 지속 여부에 대한 유보적 입장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향후 채권시장은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환율 변동, 5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의 물가 상향 조정 폭, 신현송 신임 총재의 정책 스탠스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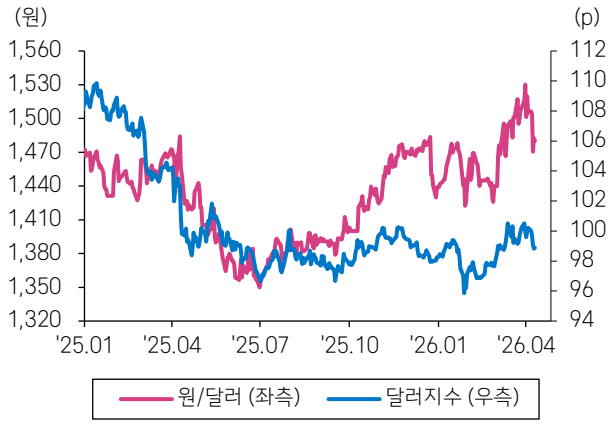
삼성증권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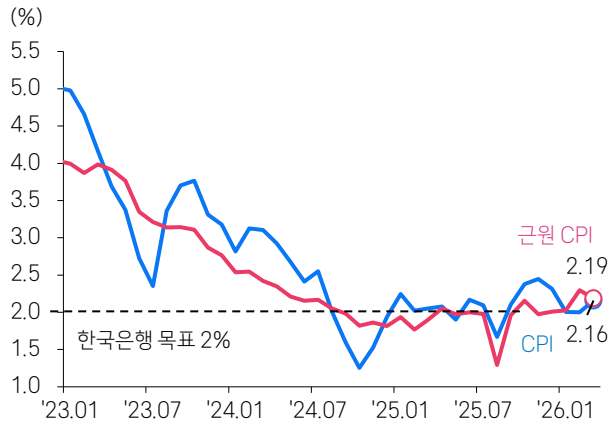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원/달러 환율과 달러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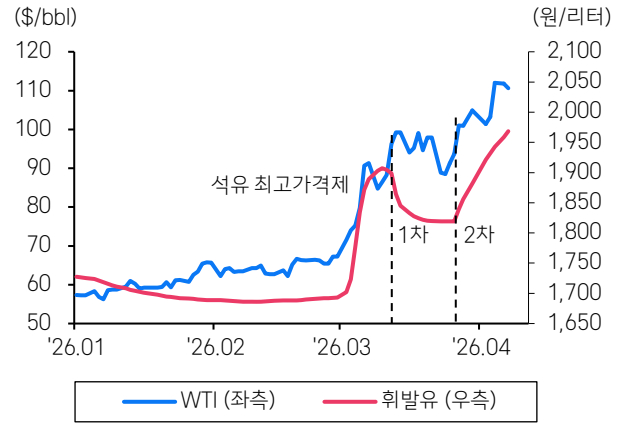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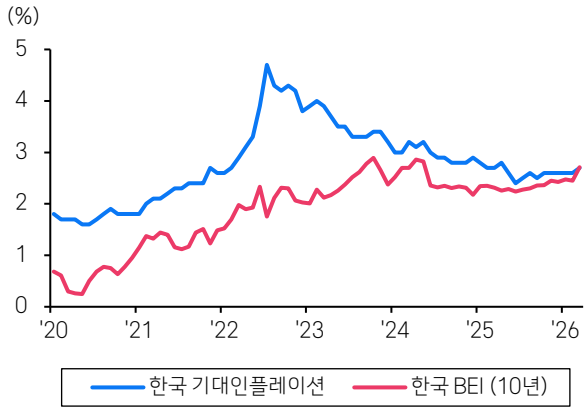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삼성증권

국제 유가 및 소매 휘발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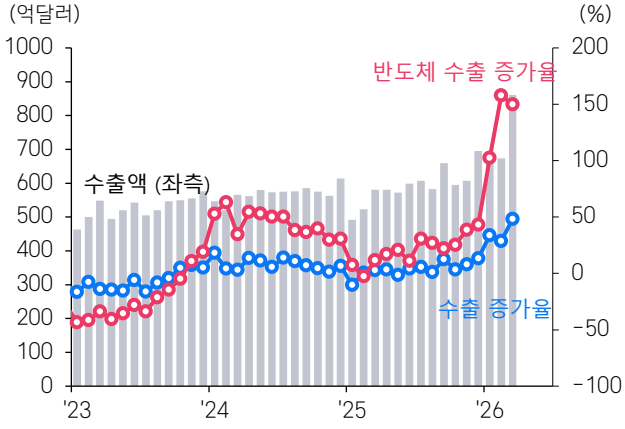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공사, Bloomberg, 삼성증권

기대 인플레이션, BEI모두 2.7% 수준



자료: 한국은행, Infomax, 삼성증권

한국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삼성증권

통화정책 방향 문구 변화

구분	2026년 2월 26일 금통위	2026년 4월 10일 금통위
정책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 및 성장의 하방 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투자 확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물가 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위험회피심리가 다소 강화되었다.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상승하다가 하락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엔화 강세,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판결 등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을 반영하여 대체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AI 과잉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AI 투자 및 지정학적 위험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는 그간 AI 관련 투자 및 주요국의 재정 확대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장기 국채금리가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큰 폭 상승한 가운데 미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다. 다만 미국·이란 간 임시휴전 이후에는 이러한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이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중동사태의 전개양상,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AI 투자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겠으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도 반도체 경기 호조 및 양호한 세계경제 성장세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및 내수회복 속도,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미 관세정책, 지정학적 위험 등과 관련한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였고 고용도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이어갔지만, 중동사태 이후에는 경제심리가 약화되고 일부 업종에서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등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되는 모습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및 추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는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반도체 경기 및 내수 회복 흐름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	물가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및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1월 중 2.0%로 낮아졌으며, 근원 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년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상승 압력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각각 2.1%, 2.0%)를 소폭 상회하는 2.2% 및 2.1%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물가를 보면, 3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2.2%)은 석유류가격이 큰 폭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높아졌으나, 근원 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2.2%)은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폭 둔화 등으로 소폭 낮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 2.7%)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방압력이 크게 확대되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2.2%)를 상당 폭 상회할 것으로, 근원 물가 상승률도 당초 전망(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 비용상승의 파급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금융시장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외국인 주식매도 등 수급부담과 엔화 등 주변국 통화 움직임에 영향받으며 등락하다가 최근 상당 폭 하락하였다. 주가는 주요 업종 실적호조 전망, 자본시장 제도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영향받아 변동성은 확대되었다. 국고채 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약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상당 폭 상승하였다가 일부 되돌려졌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 지속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전쟁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500원대로 높아졌다가 미국·이란 간 임시휴전 이후 하락하였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하락하였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던 주가도 조정받다가 일부 반등하는 등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 지속으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고 가격상승 기대도 약화되었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정책 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소폭 높아지겠지만 목표수준 근처에서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은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위험과 성장의 하방 위험이 모두 증대된 가운데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에 유의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중동 전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